

한국발명진흥회, IP 금융·가치평가 활성화 '하반기 IP금융 협의회' 성료

윤 안성렬 기자 | 승인 2026.08.26 10:35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IP금융 협의회에서 이동걸 한국발명진흥회 평가관리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안성렬 기자 |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용), '발명 등의 평가기관'(평가기관) 책임자급 관계자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 고도화와 금융 활성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2026년 하반기 IP금융 협의회'는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열렸으며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를 공유하고 국내 IP 금융·가치평가 시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러졌다.

통합 협의체로 운영되는 이번 행사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 운영협의회, 품질관리협의회, 평가정보체계 실무협의회를 하나로 합쳐 매년 상·하반기마다 정례 개최되고 있다.

평가기관과의 주요 현안 공유 및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취지에 맞춰 현장감 있는 실무 안건들이 다수 테이블에 올랐다.

회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품질결과 소개와 함께 품질등급 '우수', '양호'를 받은 기관 명단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추진 일정과 2027년 평가기관 운영실태점검 계획이 상세히 안내됐으며 신속한 지식재산(IP) 담보대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IP담보대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신설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이동걸 한국발명진흥회 평가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평가기관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의견들을 반영해 지식재산(IP) 금융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성렬 기자